

美-中 갈등에 K-반도체 '새우등'?... SK 中공장 규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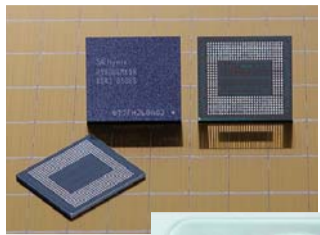
中 화웨이 폰서 SK하이닉스 칩 발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뒷에 걸렸다.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탑재됐다.

10일 테크인사이츠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만든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SK하이닉스에서 만든 LPDDR5D램과 낸드플래시가 확인됐다.

화웨이는 2019년 5월부터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미국 기술이 쓰인 첨단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살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5G 통신이 가능한 최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게 됐고, 결국 아너 등 자회사들 매각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

SK하이닉스가 LPDDR5D램을 양산한 것은 2019년 하반기부터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는 중에 SK하이닉스 LP



(위) SK하이닉스의 18Gb LPDDR5 D램. 화웨이가 발표한 메이트 60 프로. /각사

DDR5D램을 공급받은 셈이된다.

앞서 미국 테크인사이츠는 화웨이 메이트60 프로에 중국 SMIC가 만든 7나노 공정 통합칩(SoC)이 탑재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SMIC 역시 2020년 말에



SK하이닉스 우수랩

/SK하이닉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으로,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와 EUV 등 장비 수입 규제를 받아왔다.

미국 무역 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역 규제가 예상대로 반도체 경제를 약화시키면서 중국 반도체 자생력만 높게 됐다고 비판하는 분위기, 반면 미국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SK하이닉스 "절대 아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미국 수출규제를 철저히 준수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에도 이번 사안을 보고했다.

美 제재 화웨이, SK 칩 공급받은 셈 비공식적 경로 칩 반입 가능성에 관련업계, 미국 규제 비판 분위기 미국 정부 "규제 더 강화" 목소리 中, 공무원 아이폰 사용금지 '반격'

역에서 '보따리상'으로도 반도체를 다 치는대로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절묘한 의혹에 음모론까지

문제는 다음달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를 유예해줄기로 한 바 있다. 1년이 지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하지만, 무산된다면 국내 기업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드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이후 '다양한 채찍'을 언급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반도체 산업협회(SIA)가 성명을 내고 현지 업체들이 워싱턴D.C에 모이기도 했지만, 현지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 정부를 오히려 자극하는 모습이다.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 출시 일정을 일부러 앞당기면서 미국 러몬드 장관 방중 일정에 맞췄다는 추측도 나온다.

반격도 시작했다. 중앙 정부 기관 공무원에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켰다. 중국에 핵심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매출 중 20% 가량을 거두는 미국 애플에는 치명적이다.

화웨이가 쓴 메모리가 최신 제품인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제품이 올 초에 양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장에서 수출됐다면 미국이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할 근거가 된다.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이런 정치 상황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일단 화웨이가 만든 메이트60프로가 물량이 극히 적고,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나온 제품은 일부에 불과해서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반대로 정황상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타사 메모리가 병용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아서 SK하이닉스만 표적이 됐는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자칫 격랑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끝내기까지는 적지 않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화웨이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씻어내기 어려워 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JEONNAM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10.13.~10.19.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11.03.~11.08.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JNSAO,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